2017 년 10 월 29 일 "(종교개혁주일) 개혁: 진리의 재발견"(롬 1:16-17)

<도입>

2017 년은 종교개혁 500 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오늘은 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개혁의 배경과 신앙적, 신학적 동기를 살피고, 이 시대에 어떻게 개혁에 동참 할 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마틴 루터의 배경(1483~1546)

법학도였던 루터에게 생의 갑작스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22 세 되던 해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자기 앞에 벼락이 떨어져서 공포에 휩싸인 그는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하며 29 살 될 때 신학 교수가 되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 할수록 중세 말기 교회가 가르치던 교리와 관습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517 년, 당시 성행했던 면죄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정문에 95 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공개 토론을 위한 공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업자들이 이 글에 상업적 가치가 있음을 알고 복사본을 만들어 팔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불가피하게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결국 루터는 교황청의 견책 아래 그의 주장들을 철회할 것을 명령 받습니다. 루터는 이에 계속 항거하였으며, 5 년 후 본격적인 종교개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유럽 전역에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루터는 결국 퇴출되어서 카톨릭 밖에서 개혁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항거한다는 뜻의 Protestant Church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마틴 루터의 신앙과 신학

20 대 루터에겐 늘 신앙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서 내 삶이 계획대로 성공했는가,좋은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복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 삶의 향상에 치우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목마름으로 루터는 성경 연구에 몰입하여 중요한 두 가지 신약의 중심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진리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를 죄 없는 자처럼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의 조건을 보셔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7 절 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즉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를 가능케 한 종류의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루터는 믿음 안에서의 참 만남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17 절 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그분께 속한 어떤 성품(정의, 공평, 옳으심...)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구약부터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예수님을 통해), 즉 약속의 성취임을 깨달았습니다. 줄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2) 십자가 신학

루터는 교황청의 위협 속에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통과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루터 신학의 대표격인 십자가 신학이 정립되었습니다. 루터는 "(눈으로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형성시켜주는 시련의 도가니이다!" 임을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진짜 성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루터는 깊은 성서 연구를 통해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주제로 천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중세 교회에서 오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면죄부라는 부패한 실상에 대한 한 신학자의 항거를 통하여 그것이 그릇됨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중대한 진리의 발견을 주셨습니다.

[3]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개혁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은 감추어졌던 **진리의 재 발견** 아래 따라오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우리에겐 이미 성경과 주일 예배,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발견 되어야 할 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도구들을 통하여 간절히 구하며 진리를 붙들 때 시대를 향한 개혁의 여명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예비하신 개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 500 주년을 맞아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예배와 교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재발견하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개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건적으로는 면죄부였지만, 면죄부에 대한 강한 항거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2. 나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3. 개혁이란 개인의 변화가 한 뜻 아래 모여질 때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토론 해보시고 나누어진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